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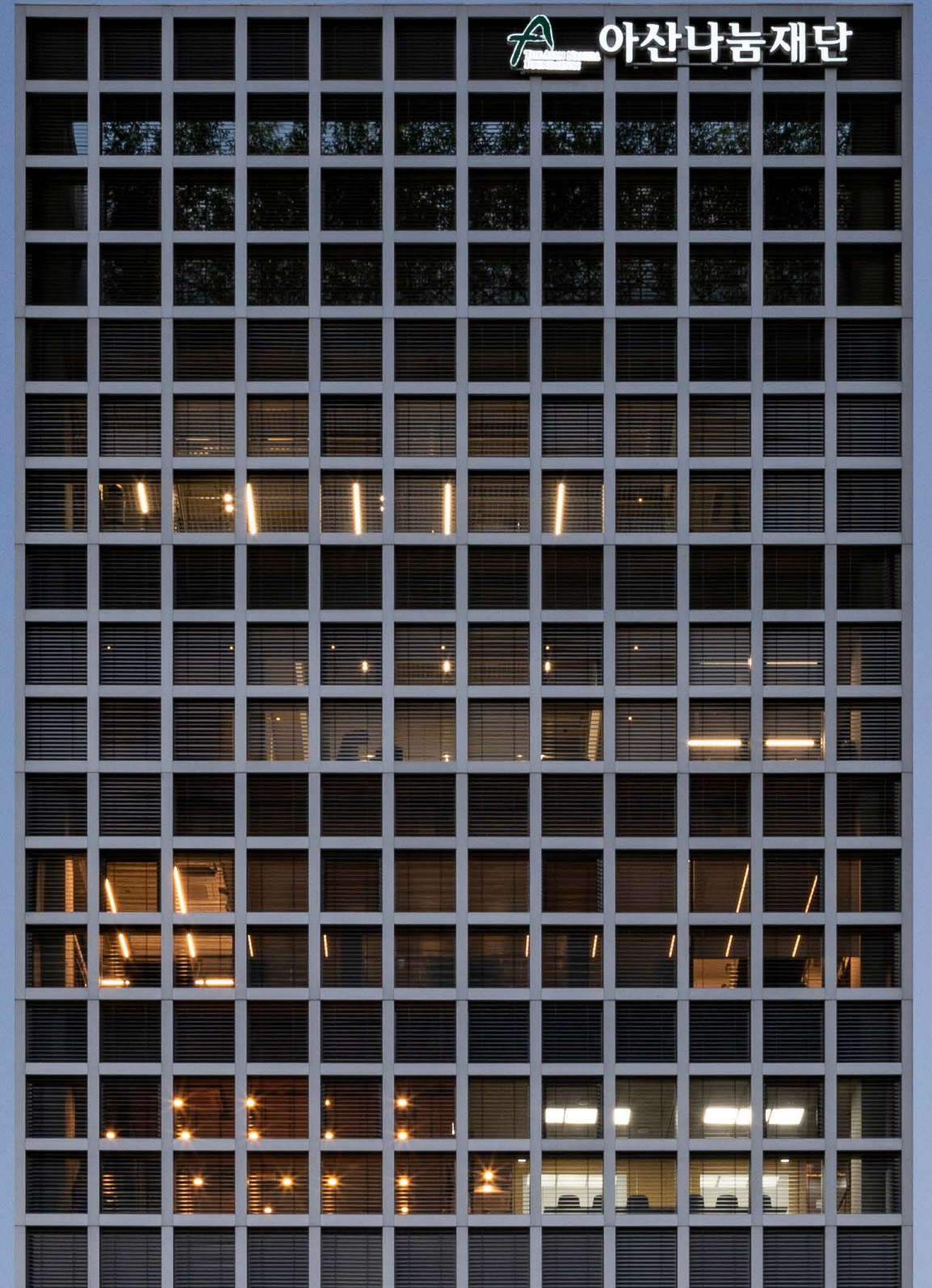


**THE ASAN NANUM FOUNDATION
ANNUAL REPORT 2018**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8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래세대가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7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



제7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
대 상
아산나눔재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열정으로 뭉친 청년들이 한데 모여
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비영리 생태계의 사회혁신가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 걷습니다.

CONTENTS

목차

INTRO 인트로	인사말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인사말	16	OVERVIEW	20	
	이사장 인사말	18	비전&미션	21	
			2018 HIGHLIGHT	22	
PROGRAM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31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44	
	기업가정신 레츠고	36	MARU180	47	
	아산 프론티어 유스	37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50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40	스타트업코리아!	51	
	아산서원	42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52	
			남산 랩 코리아	53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5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N_SQUARE	58			
	파트너십 온	59			
	TRANSPARENT MANAGEMENT 투명경영	재정 보고		아산나눔재단 사람들	
		사업비 지출현황	62	임원진	65
재무 상태표·운영성과표		63	사무국	66	
			출연자 및 출연기관	67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아산 정주영



정몽준
명예이사장

아버님은 “인간은 발전하기 위해 살아간다.

태어나는 환경이나 조건은 달라도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미래는 발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미래의 발전이

곧 청년의 발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아산나눔재단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설립된 것은 아버님이 서거하신 지 10주년째 되던
2011년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버님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을
사회에 확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의지와 끈기로 이를 해결하셨던 아버님은 “경제는 돈이
아닌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창의와
노력은 무한하다. 인간이 나태해지지 않는 한 발전은 지속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겠지만 더욱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며 기회의 평등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희망으로, 변화를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기업인의 덕목으로 강조하신 ‘보다 새로운 일, 보다 큰
일에 대한 열망’이라는 굳센 의지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문화를 전국으로 넓히며
영리·비영리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해 갈 것입니다.

아버님은 “인간은 발전하기 위해 살아간다. 태어나는 환경이나 조건은
달라도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미래는 발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미래의 발전이 곧 청년의 발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이사장

한 해의 사업을 시작하고 매듭지을 때마다
아산나눔재단의 활동이 이 사회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함께한 이들의 눈빛입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분명 우리의 사회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연차보고서를 통해 아산나눔재단이 그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과정의 보람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으로 청소년과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며 나눌 수
있도록 2018년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재단의 활동이
곳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단단한 가지로 뻗어가고 있음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전국 18,252명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사고하여 사회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가며
아산의 기업가정신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청년들은 인문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해외 인턴십으로 시야를 확장하며 다양한 사회 혁신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비영리 분야의 활동가들은
도전정신과 리더십을 높이는 동시에 나눔의 기회를 직접 넓혀갔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 제안 및 파트너십
사업도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의 역량을 키워냈으며 창업지원센터 MARU180은

각종 인프라와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 창업 솔루션을 제공하며 스타트업의
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운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
및 파트너십 후원 또한 창업의 희망이 알찬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해의 사업을 시작하고 매듭지을 때마다 아산나눔재단의 활동이 이 사회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함께한 이들의 눈빛입니다. 입단식에서 설렘과 긴장이 맴돌던 눈빛은 수료식을
할 때면 뿌듯함과 자신감, 단호한 결의로 바뀌어 있곤 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분명 우리의 사회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이에 힘입어
또 한 해를 준비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해 주신 정몽준 명예이사장님,
그리고 이에 뜻을 모아 주신 출연자,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시는 전문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사,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비전과
미션을 올곧게 따르며 사업을 기획하고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우리 직원들께도
고마운 마음과 격려를 전합니다. 재단과 함께해 주신 모든 청소년과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들께도 감사드리며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은 도전을 지원하고 나눔을 넓히며 사회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격려는 물론 질책과 조언까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OVERVIEW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 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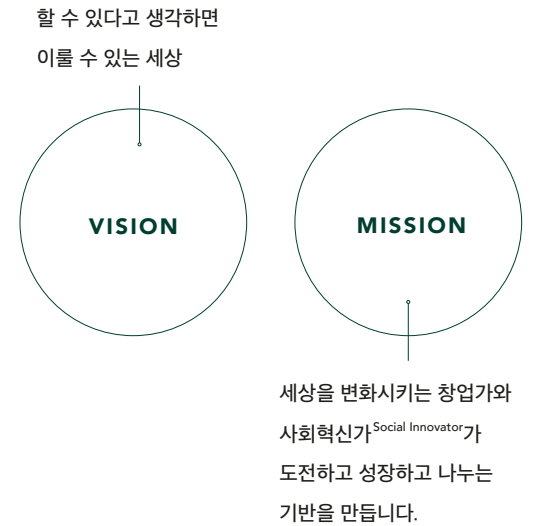


VISION&MISSION

아산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이를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다음세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 1** **도전** :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힘
성장 : 배움과 실천을 통한 잠재력의 발휘
나눔 : 더불어 사는 책임주체로서의 성숙한 의식
- 2** **역량개발** : 일회성, 시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사회적 파급효과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자생력 복원 : 개인과 사회의 자생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
- 3** **책임성** :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지만 책임있는 투자
질적 성과 : 양적 사업성과를 넘어 질적 사업성과를 추구
투명성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사업진행

2018 HIGHLIGHT

아산나눔재단은 새로운 도전과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더 큰 나눔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8년 한 해,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 JAN.

1.22 아산나눔재단-한양대학교 업무 협약체결

2 FEB.

2.1 파트너십 온 2018 협약식

2.5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모집

2.9 아산 프론티어 유스 3기 수료식

2.14 아산서원 11기 졸업식

2.20 아산 프론티어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3 MAR.

3.7 아산나눔재단-500스타트업 더브릿지 The Bridge 론칭

3.12 MARU180 상반기 입주 스타트업 모집

3.14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공개 모집 실시

3.19 파트너십 온 4기 모집

3.20 아산나눔재단-매경미디어그룹 업무 협약체결

4 APR.

4.4 아산나눔재단-홍익대학교 업무 협약체결

4.14 MARU180 개관 4주년

5 MAY

5.1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모집

5.2 제7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입학식

7 JUL.

7.6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2018 N_FORUM 개최

7.13 아산 프론티어 유스 4기 입단식

8 AUG.

8.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현장 프로젝트 후원 시작 (~12월까지, 17개 학교)

8.7 히어로 씬머 캠프 진행

8.9 히어로스쿨 프로젝트 쇼케이스 개최

8.20 기업가정신 레츠고 Let's go 프로그램 론칭

8.22 제7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대회 실시

8.29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함께 Diverse Founders Program 진행



아산
기업가정신
교육 포럼

아산 기업가정신 교육 포럼



우리가 만들 미래,
기업가정신에서
답을 찾다.

기록 및 네트워킹

오프닝
13:45 환영사
축사

1부. 아산과 기업가정신

아산형 기업가정신

13:45~14:25 기업가정신 교육의 기회와
민간의 역할

2부. 우리가 만들 기업가정신

SXSW EDU,
3년의 기록과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이 만든 미래,
본질을 찾다

15:35 100년 기업가정신 100년





아산나눔재단은 2018년 11월 8일,
 <아산 기업가정신 교육 포럼>을 열어
 ‘아산형 기업가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현장에서 기업가정신을 전파하는 이들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다시 한번 진정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들과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재 도약은 소수의 걸출한
 기업가 또는 기업의 출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들 사이에 다시 한번 경제하려는
 의지 The will to economize , 기업가정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PROGRAM

프로그램

아산나눔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 확산 사업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31
기업가정신 레츠고	36
아산 프론티어 유스	37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40
아산서원	42

청년창업 지원 사업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44
MARU180	47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50
스타트업코리아!	51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52
남산 랩 코리아	53

비영리 역량강화 사업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55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N_SQUARE	58
파트너십 온	59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아산나눔재단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더불어 기업가정신 문화를 교육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인 '어썸스쿨 Awesome School'과 함께 '히어로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유쓰망고'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17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기업가정신 역량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현직 교사에게는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총 17개 학교 1천 252명의 학생들이 후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창업 교육, 메이커 교육, 사회문제 및 교내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8 히어로스쿨 운영결과

참여 학교 수
139 개



참여 학급 수
605 개



참여 학생 수
17,000 명



청년 강사 수
68 명



INTERVIEW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교사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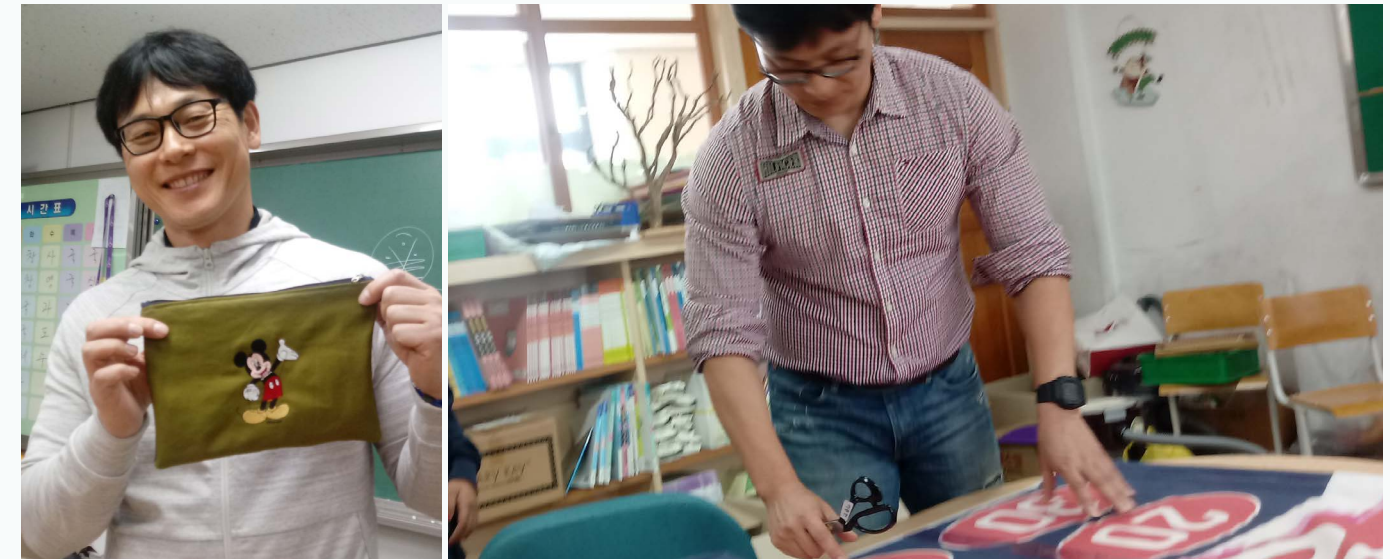
이종현
신갈초등학교
교사

2018년 아산나눔재단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를 후원했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열정적인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신갈초등학교 前 용마초등학교 이종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기업가정신 함양이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이며, 어릴 때 기업가정신을 접할수록 마인드 셋 MINDSET 형성이 쉽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고, 아이들이 이를 위해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릴수록 반응이 더 즉각적으로 오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대상은 주로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 학생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생에게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면, 훨씬 빠르게 흡수합니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아이들은 현존하는 세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또 그것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기업가정신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산나눔재단의 후원을 통해 진행한 프로젝트는 ‘히어로즈 HEROES’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히어로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재봉틀을 새로 구입하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생님도 재봉틀을 할 줄 모르고,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어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좋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한 번 해보지 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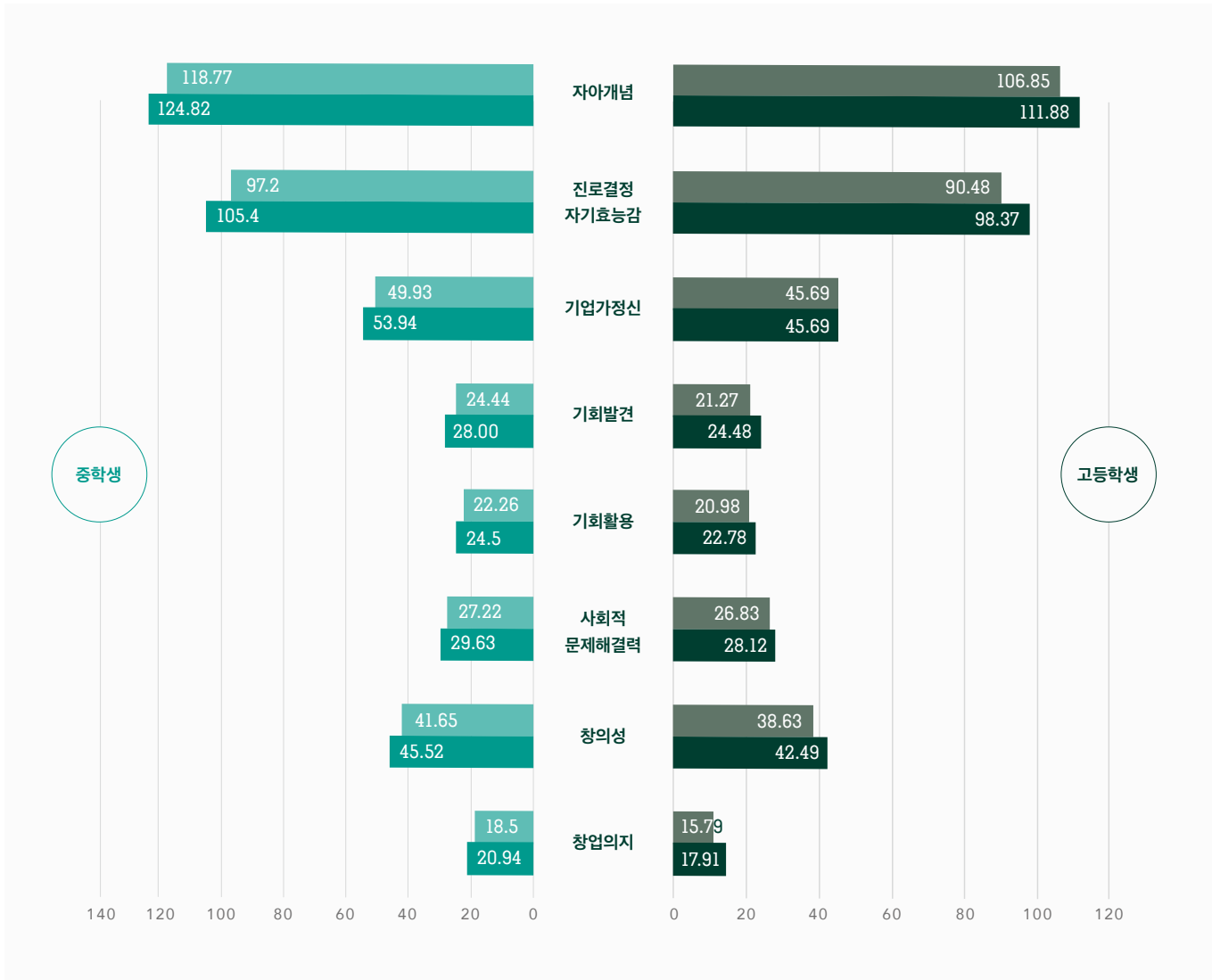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수확입니다. 관점을 다각화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변화도 빠릅니다. 또,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폐의류를 활용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필요해요. 제품을 디자인 하는 아이, 재단을 하는 아이, 마케팅을 해야 하는 아이 등 말이죠. 결국 협업이 필요한 것인데,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것 참 좋다, 관찰네!’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죠.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가 없다면 창의성도 없어요.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현시점에서 아이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아이들의 기업가정신 이해를 돕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 양성, 다른 하나는 아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분출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지 않으면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강연이나 연수를 소화할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의 개념인 것이죠.

“기업가정신을 접한 선생님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파급효과는 기하급수적일 것입니다.”라고 확신에 가득 차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종현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업가정신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아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알려주고 싶다는 이종현 선생님.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변화를 마주한 아이들이 선생님의 바람대로 씩씩하고 멋있게 자라주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2018 히어로스쿨 교육 효과성 측정 결과



기간	2018년 3월~8월 (총 6개월)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20개 총 816명 대상 (고등학생 442명, 중학생 374명)
방법	교육 사전, 사후 2회 검사, 통제 집단 설정
결과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유의미하고 분명한 변화가 나타남

REVIEW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참여 학생 소감

저는 히어로즈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정신과 도전, 열정을 배웠어요. 기업가정신이란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신을 가지고 도전과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6학년 3반도 기업가정신을 기르는 활동을 했는데요, 바로 주변에 버려진 캔들을 멋진 향초로 제작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느꼈지만, 수익금을 10만 원 넘게 벌여 유니세프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도전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용마초등학교 김민수 학생

처음 선생님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 못 입거나 작아져 안 입는 옷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는 '다 낡아빠진 옷들로 무엇을 만들 수 있지? 만든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예쁠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낡은 옷을 이용해 직접 디자인과 재단을 해보니 정말 예뻐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재봉틀을 다룰 때는 선생님조차도 재봉틀 다루는 법을 몰라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도 실수하며 배우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구 환경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도 도전과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선생님처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할거예요!

용마초등학교 김아현 학생

저는 기업가정신을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과 반듯한 마음가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끝까지 해낼 수 있고, 반듯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좋은 행동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열정과 반듯한 마음가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매일을 보내고 싶어요!

용마초등학교 석하정 학생

기업가정신은 저에게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같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배우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기업가정신을 친구 삼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멋진 아이디어로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가에 대해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아하는 말은 던킨도너츠에서 이야기하는 'Start Small! Think Big! Move First!'입니다. 저도 도전을 즐겁게 하고, 나의 이익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위해 일을 하고, 독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움직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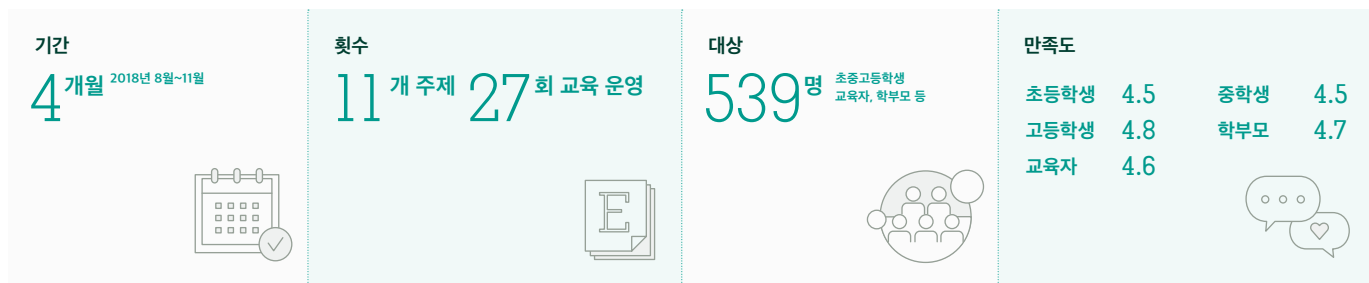
용마초등학교 한규원 학생



기업가정신 레츠고

기업가정신 레츠고는 아산나눔재단이 2018년 8월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정신에 관심이 있는 교사 및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 간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교사 및 학부모 등 총 53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기관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8 기업가정신 레츠고 Let's Go 운영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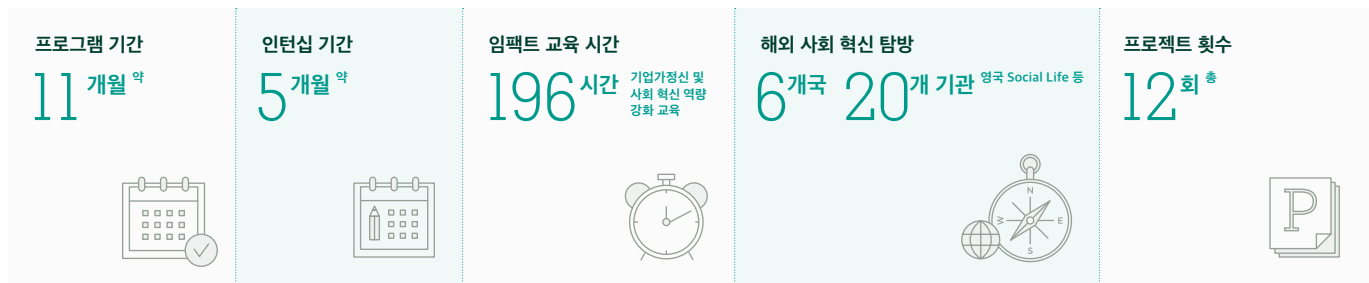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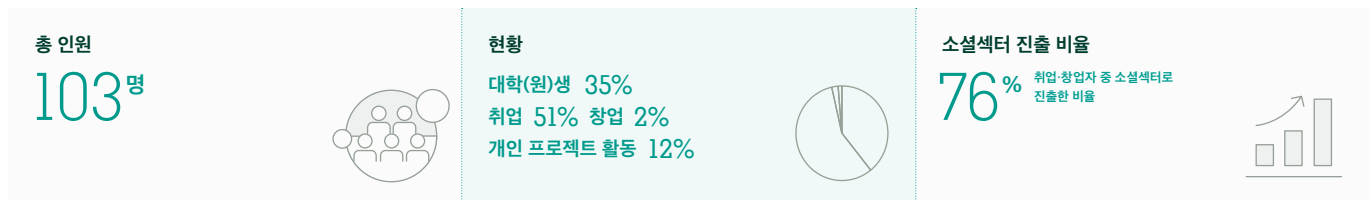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차세대 사회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소셜섹터에 관심 있는 청년을 선발해 △소셜섹터 기관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5개월 동안 교육, 문화 예술, 국제협력, 마이크로크레딧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혁신 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변의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소셜 섹터 전문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거쳐 간 수료생은 103명, 인턴십 참여기관은 총 58개(중복제외)에 달합니다.



2018 아산 프론티어 유스 운영 결과



2018 아산 프론티어 유스 동문 현황



REVIEW 아산 프론티어 유스 단원 소감



글로벌 스터디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기관 직원들이 모두 각자의 업무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명받았어요. 직접 해외 기관을 방문해보니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저만의 뚜렷한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규 단원



주변에 소셜섹터, 사회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친구가 없었는데 아산 프론티어 유스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팀 멤버를 꾸릴 때 관심 있는 주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생각해보고 싶었던 사회 문제를 단원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송다운 단원



이전부터 계속 고민해온 사회문제를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사회혁신 사례를 조사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다정 단원



5개월 간의 인턴십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고 쉬운 일부터 크고 어려운 일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빅 플랜' Big Plan과 그 안의 디테일 Detail 사이를 오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호흡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조정은 단원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실제 고민을 담은 케이스 스터디 Case Study입니다. 특히, 2018년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대학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나 창업생태계 종사자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정 중 겪은 고민을 케이스 스터디로 접해보고, 창업가의 의사결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벤처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사례를 모두 다뤘다면, 개편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으며, 구체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사업모델과 투자 과정, 조직 내부의 전략과 의사결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국내 창업생태계 내 화제가 되는 기술이나 산업 이슈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함께 발행해 창업생태계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까지 39개의 사례가 발행되었으며, 총 53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습니다.

2018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운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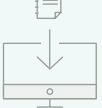
사례 다운로드 수

1,588회



티칭노트 다운로드 수

194회





2018년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발행 목록 18개 사례

사례기업명	발행일	사례명	저자
직방	2018.1.19	집을 구하는 공식을 바꾸다	김재영, 조부연, 이성희
한국콜마	2018.1.25	K-Beauty 메이드 인 차이나	변진호, 신정순
바른세상병원	2018.4.6	올바른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 바른세상병원의 미션기반 전략	이성호, 김상순
텐바이텐	2018.5.17	독수리 오형제의 비상 - 텐바이텐의 도전	신형덕
CJ 포디플렉스	2018.6.1	영화 상영 플랫폼의 진화 - CJ포디플렉스 '4DX'의 글로벌 확산 전략	김상훈, 이방실
프론틱	2018.8.31	여성 고용을 통한 일터 혁신	김효선, 안세연
4D Replay	2018.9.21	4차원 영상 기술의 개발, 그리고 기술 경쟁력	양홍석, 신재호
PMC	2018.9.21	오렌지밭에서 진주 캐기 - <난타> 활동의 공유를 통한 성장 전략	김경묵
삼진어묵	2018.9.21	가치 혁신을 통해 일상재의 '저주'를 풀다	정재석, 문정훈
LetinAR	2018.10.21	쌓아가는 이들	원수섭
세바시	2018.10.31	세바시의 스피노프 과정과 전략 변화	김영인
텀블벅	2018.11.9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의 견고한 성장방정식	박윤중, 이학중
마켓컬리	2018.11.16	온라인화 더딘 신선시장 - 마켓컬리, 셋별배송 콜드체인으로 문을 열다	김철민, 엄지용
카카오모빌리티	2018.12.6	From messenger to mobility	위정현, 정재훈
직방-호갱노노	2018.12.6	포화된 시장, 생존을 위한 협업	김재영, 조부연, 이성희
벨트	2018.12.13	스마트 벨트, 세계를 감다	김재영, 조부연, 이성희



아산서원

아산서원은 아산나눔재단이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년 선발되는 50명의 원생은 1년간 아산학사에 입학해 최고의 교수진으로부터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등의 국제적 싱크탱크에서 인턴십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설립 이후 아산서원을 통해 총 283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아산서원 출신 원생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전국에 기업가정신과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실천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회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되며, 스타트업 창업가 강연, 전문가 멘토링, 사업실행, 결선대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실행 단계에 진출한 팀은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MARU180'에 입주해 9주간 실제 사업을 진행하며, 유수의 액셀러레이터 파트너 및 벤처캐피털 투자자 등 창업 분야 전문가로부터 전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2년 1회 대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61개 팀을 발굴했습니다. 대회를 거쳐 간 팀들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알럼나이^{Alumni}'에 소속돼 아산나눔재단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으며, 창업생태계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7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운영 결과



INTERVIEW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멘토 인터뷰

양경준
크립톤
대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선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바로 수상자들입니다. 결선대회에 오르는 결선진출 팀들이죠. 하지만, 이 팀들이 완벽하게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참 많은 조력자가 있는데요. 바로 9주간의 사업실행 기간에 '원석'인 결선 진출팀을 '다이아몬드'로 다듬는 전문가 멘토들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 초기 창업팀의 멘토가 되어주는 분, 크립톤 양경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국내 메이저 창업경진대회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의 방식이 참 재미있어요. 멘토와 멘티를 매칭할 때, '사랑의 작대기' 방식으로 서로를 비밀리에 선택하게 되거든요. 매칭되면 서로 얼마나 우선순위로 서로를 원했느냐(?)를 알게 되죠. 9주간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매주 만나 집중 멘토링을 진행하는데요. 이 방식은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팀이 주간 단위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더 뿌듯하죠.

양경준 대표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와 자신이 잘 맞는 이유를 '기업가정신'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창업가에게 기업가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가는 사업 모델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업의 서비스가 그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운영 방식이 업계의 부정적 관행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가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이를 구현하는 실행 능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팀은 분명 기업가정신을 갖춘 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6회 대상팀 '딥메디'와 7회 대상팀 '클라썸'에게는 기업가정신이 내재돼 있었던 것일까요? 두 팀의 잠재력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질문했습니다.

딥메디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었어요.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심장박동을 체크할 수 있으니 이용자 접근성이 좋고, 알고리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 부분을 사업 모델이 되게끔 제가 도와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클라썸은 처음에는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많이 받게 하는 솔루션이었는데요. 저는 대학 강의를 넘어 모든 종류의 강의형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봤어요.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내준 것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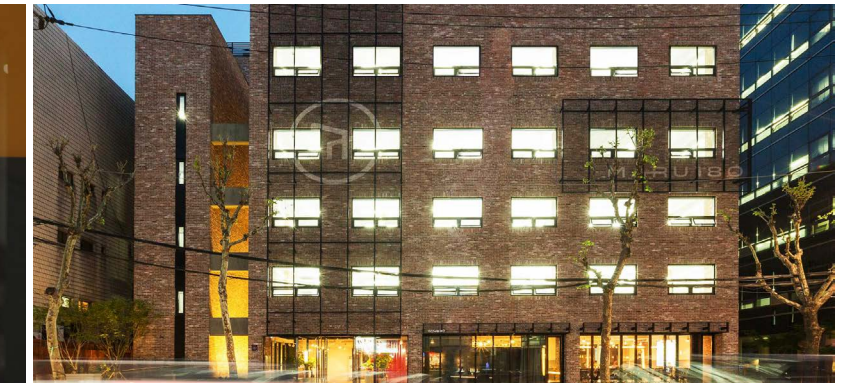
양경준 대표는 멘토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는 지원’으로 꼽았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의 결선에 진출한 팀은 단 9주만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해요. 게다가 대부분 창업 초기 팀이기 때문에 전문 액셀러레이팅을 받아본 기회가 없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미션을 주고 그 기간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밀어붙였어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팀이 만족할 만큼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나름의 비법(?)이고요. 우리나라는 ‘밥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밥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할 때가 많거든요.

양경준 대표는 제8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도 또 한 번 멘토로 나섭니다. 기업가정신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뒷받침되면 나머지는 모두 멘토의 역량, 액셀러레이터의 몫이라고 덧붙이는 그의 말에서 멘토로서의 책임감과 자신감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창업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답을 꼭 설정하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하라는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이 올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에도 귀감이 되겠죠?

양경준 대표의 아낌없는 지원과 멘토링이 계속될 제8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결선대회도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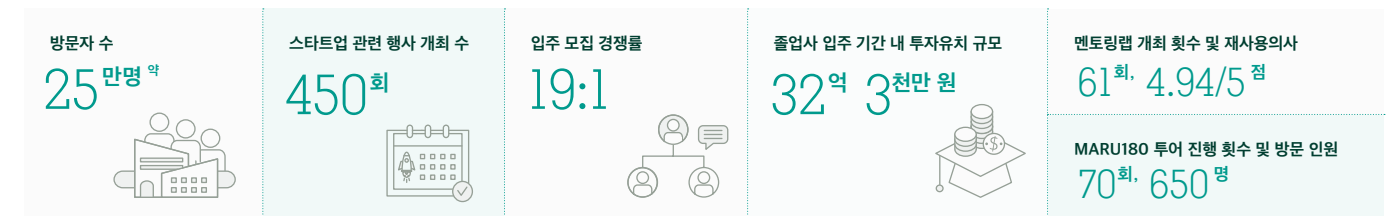
MARU180

MARU180은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네트워크, 교육 등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에 있는 이곳은 2014년 4월에 문을 열었으며, 총 6개 층, 1,090평 규모로 스타트업 사무공간, 코워킹 카페, 이벤트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ARU180은 입주 선발 심사를 통과한 스타트업에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회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크레딧, 홍보 마케팅,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ARU180에는 스타트업 외에도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이 함께 입주해 있으며, 네트워킹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입주기업 직원들의 생활 편의와 상호 교류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멘토링랩을 운영해 외부 창업가에게도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이벤트홀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교육, 해커톤, 데모데이, 네트워킹 모임 등이 상시 진행됩니다. 2018년에만 스타트업 관련 행사가 450회 열렸으며, 현재까지 MARU180을 거쳐 간 기업도 총 175개에 이릅니다. 또한, 2018년 마루180에 입주한 입주 스타트업의 인력은 입주 전 평균 8명에서 입주 후 평균 13.7명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18 MARU180 운영결과



이하영
도그메이트
대표

2018년 한해, 마루180의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한
입주사를 한 곳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도그메이트’^{대표 이하영}를 꼽고
싶습니다. 도그메이트는 2018년 5월 입주해 ‘마루민’으로
1년을 보낸 반려동물 스타트업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보호자가
여행, 출장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집에 홀로 남게 되면 이를 돌봐줄
돌보미를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도그메이트가 처음 마루180에 들어온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저희는 마루180 지원을 16년과
17년 두 차례나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다 작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마루180에 공석이 생겨 저희에게 기회가
왔고, 스타트업 문화가 녹아있는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도그메이트 이하영 대표는 마루180의 이벤트,
네트워킹이 팀원들에게 ‘리프레시’가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희 사업 특성상 반려동물이 빠질 수
없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팀원
모두가 굉장히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대표로서 제가 팀원들을 다독여야 하는데
스타트업 특성상 성장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마루180에서 개최하는
타운홀미팅과 소소한 이벤트가 팀원들을
숨길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대표로서는 제가
할 일을 마루180에서 대신 해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여러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데,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을까요?

같이 입주해 있던 모든 팀에게 건강한
자극을 받았어요. ‘비주얼’이라는 주얼리
플랫폼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사무실을 비우고 다 같이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대체 어딜 가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회식 대신 팀 모두가 하고 싶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팀원들을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체험이나
랜덤회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팀워크를
다지려고 했죠.



마루180에 입주해 있으면서 얻은 소득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성장’입니다.

마루180에 들어오기 전에는 초기 멤버
넷이서 고군분투 했어요. 마케터, 디자이너가
운영, 홍보, 조직문화 등 모든 것을 담당했죠.
마루민이 되고 나서 멤버가 11명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회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팀원을
대하는 저의 마인드도 한 뼉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팀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도그메이트에 들어와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도그메이트가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도 점점
커졌습니다. 경쟁사도 많이 생겨났고요.
하지만, 도그메이트는 그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론칭했고,
방문서비스 중에서도 비투비^{B2B} 제휴를
확장해갈 생각입니다. 또, 펫시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목표예요. 올해 말에는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도그메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도그메이트에게 마루180은
어떤 의미였을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도그메이트에게 마루180은
‘모교’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같다고 느껴져요.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잖아요.
도그메이트가 제대로 사업을 하게 된 것도
마루180에 입주할 때 즈음이었으니
도그메이트에게 마루180은 갓 입학한
초등학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계속
그러한 존재로 남아주길 바라요.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은 아산나눔재단이 국내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2년 2월에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협력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직접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현재까지 총 326억 원의 출자약정액을 통해 약 9천억 원의 펀드 결성에 참여했고, 이들 펀드를 통해 634개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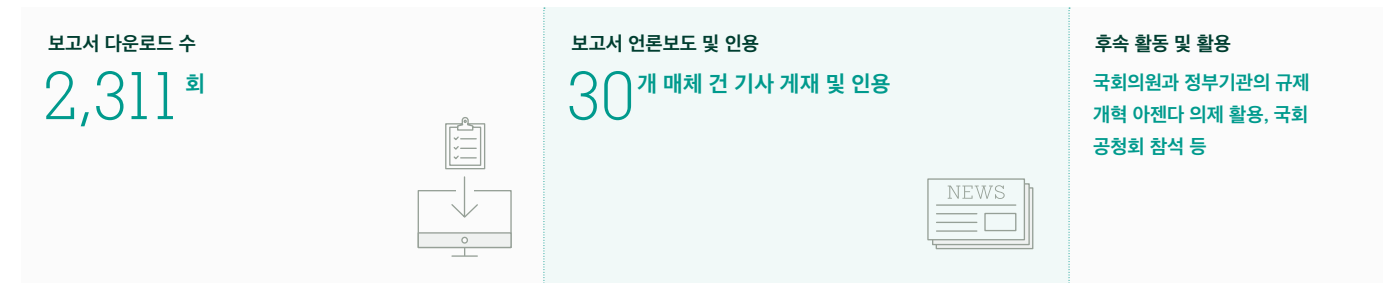
정주영 엔젤투자기금 운영 결과



스타트업코리아!

아산나눔재단은 2017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스타트업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건전한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디캠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헬스케어 산업 전반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간기관, 스타트업, 정부, 의회, 학계 등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모여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는 실제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 설계 등에 활용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수 언론매체에 인용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 스타트업 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 발표회 진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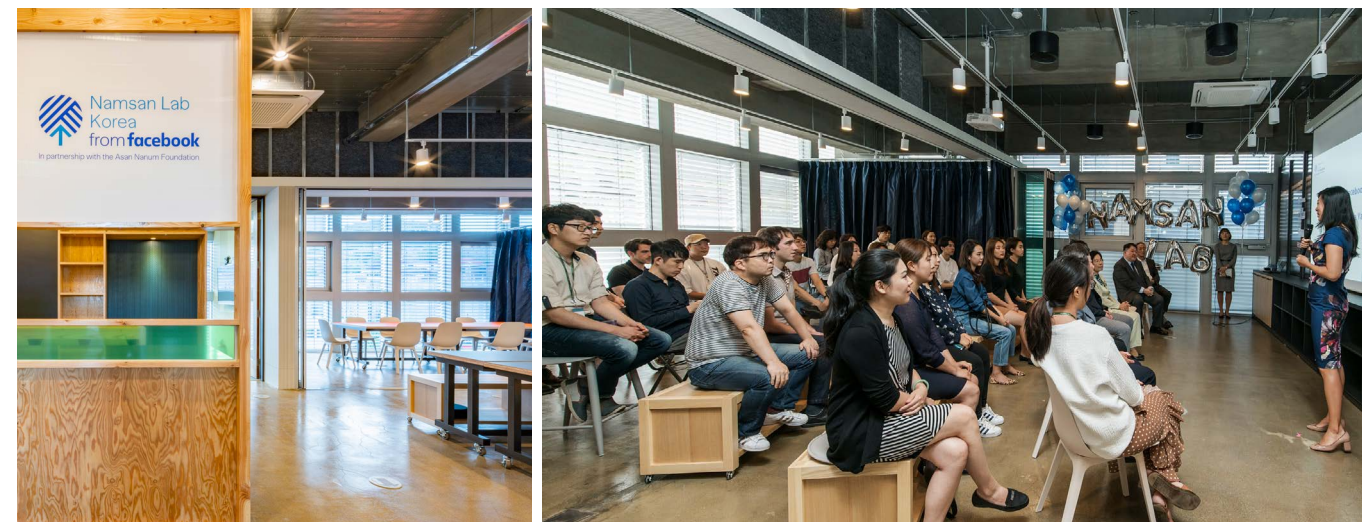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스타트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선보이고, 더 많은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과 대규모 컨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8 창업생태계 파트너십 운영 결과



남산 랩 코리아

2018년 9월에 문을 연 남산 랩 코리아는 아산나눔재단과 페이스북이 공동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문을 연 페이스북의 스타트업 지원 시설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페이스북과의 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술 기반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돕고, 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남산 랩 입주 스타트업은 6개월간 독립된 사무공간과 라운지, 회의실, 주방, 이벤트 공간 등 공동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페이스북 엔지니어와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입주팀으로는 '디폴리', '딤핑소스', '뉴티각스', '클라썸', '아드리엘', '오내피플' 등 6개 스타트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8 남산 랩 코리아 운영결과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현직 비영리 중간관리자가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기업가정신을 고루 함양한 차세대 비영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들은 경영 전략, 인적자원, 마케팅, 재무회계 과 리더십, 사회혁신, 캡스톤 프로젝트로 구성된 통합 교육을 통해 기관 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진행되는 교육은 단순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사례학습과 토론, 워크샵, 해외방문연구조사를 포함한 다면적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13년 제1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52개 비영리 기관의 208명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7기 운영결과

*2018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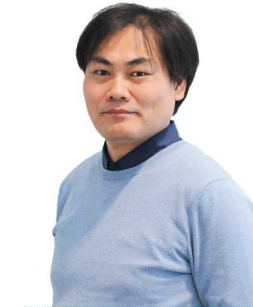


REVIEW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강생 후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저에게 전환점을 뛰어넘는 전환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교육 과정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해서 매 순간 '지금&여기'라는 물입이 가능했고, 탁월한 교수님들과 체계적으로 갖춰진 모듈 덕분에 강렬한 인사이트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과정을 마치면서, '기업가정신'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보물 지도와 나침반이 쥐어진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7기 수강생 장진숙 한국메세나협회



저는 이전에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했고, 현실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를 타협이라고 생각하며 정당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것이 정말 새롭게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싶다는 욕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지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죠.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에서 겪은 저의 경험을 우리 조직과 동료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모습을 만들고, 일을 즐기며, 변화를 통해 생각을 이뤄내는 데 집중할 힘을 얻었습니다.

7기 수강생 조상현 위캔센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리더가 갖춰야 하는 역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을 통해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7기'라는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된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극받고, 위로받고,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며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7기 수강생 최효정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조직이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에 부합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요.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을 관찰하고, 또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리더로서의 지식을 넘어 리더로서의 '자세'를 키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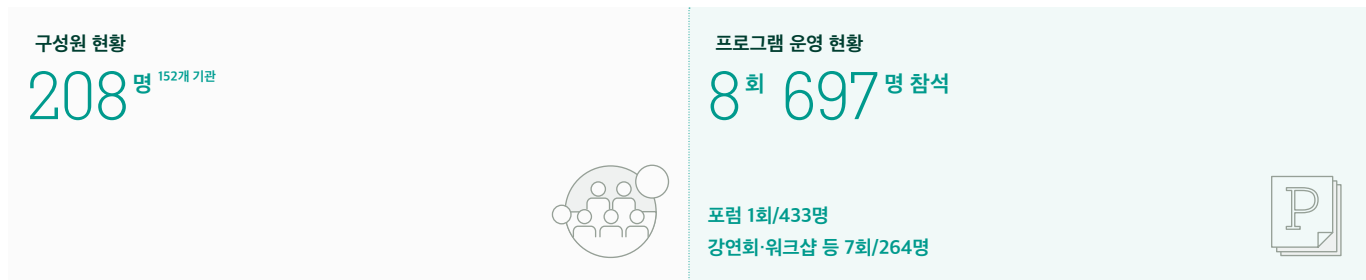
7기 수강생 홍도은 재단법인 플랜한국위원회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N_SQUARE

N_SQUARE는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자발적 비영리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비영리 분야의 활동가들이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며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N_TALK', 사회변화 현안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콘퍼런스 'N_FORUM' 등이 매년 개최됩니다. 'N개의 연결 N개의 세상, 비영리 어떻게 연결하고 협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 4회 N_FORUM에는 4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 프로젝트 및 예비창업을 지원하는 아산 프론티어 플러스 공모사업을 통해 남북청년 소통 및 교육용 '공감카드', 환경교육 보드게임 '에코트래블', 새로운 장르문화 조성을 위한 인생 리플렛 '굿바이미'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18 아산 프론티어 네트워크 N_SQUARE 운영결과



파트너십 온

파트너십 온은 미래세대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꿀 비영리기관을 '벤처 기부 Venture Philanthropy' 방식을 통해 재정적·비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미래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을 '혁신리더'로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해 왔습니다. 전략, 홍보, 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자문하고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비재정적' 지원과 함께 한 기관당 최대 3년간 연간 2억 원씩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2018년 11월 아산나눔재단은 파트너십 온 데모데이를 통해 비영리 기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협업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데모데이에는 '꿈이룸학교', '십대여성인권센터', '우리들의 눈', '피치마켓' 등이 250여 명의 관계자 앞에서 기관 소개 및 지원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파트너십 온 운영 및 지원 현황



**TRANSPARENT
MANAGEMENT**
투명경영

아산나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지키며
나눔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재정 보고

사업비 지출현황 62
재무 상태표·운영성과표 63

아산나눔재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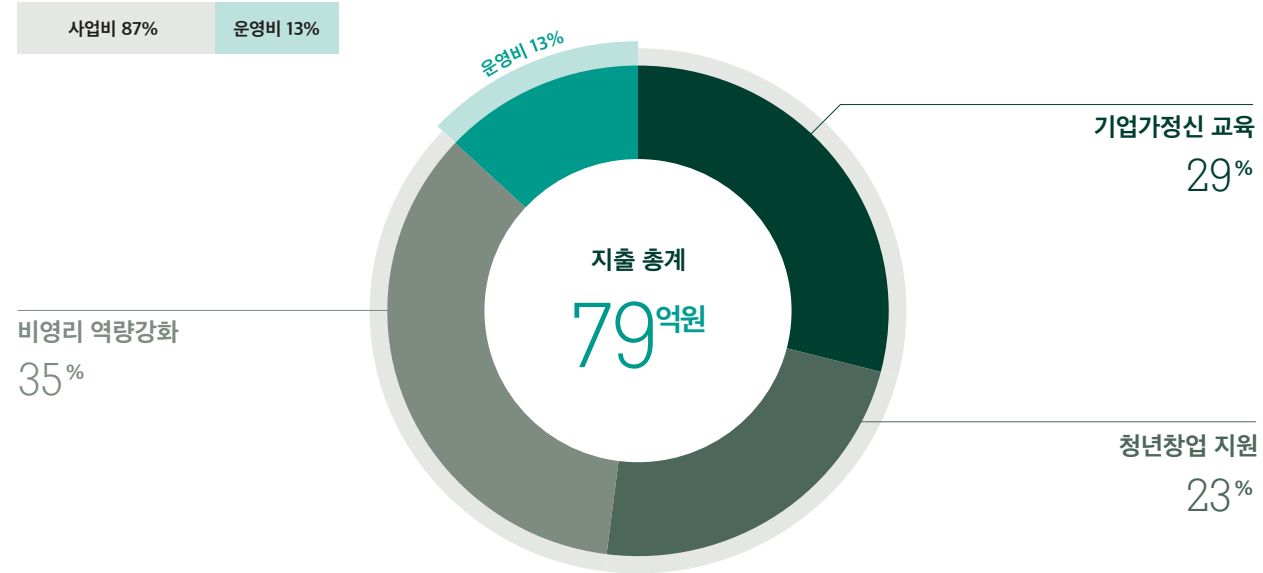
임원진 65
사무국 66
출연자 및 출연기관 67



사업비 지출현황

아산나눔재단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출현황



단위: 원

사업비	6,874,784,943	87%
기업가정신 교육	2,273,938,998	29%
청년창업 지원	1,840,595,652	23%
비영리 역량강화	2,760,250,293	35%
운영비	1,025,522,596	13%
합계	7,900,307,539	

*해당연도 목적 사업을 위한 자산취득액 등이 포함된 금액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아산나눔재단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법과 제도를 준수합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과목	제8(당)기말	제7(전)기말
자산		
1.유동자산	184,887,306,417	90,433,705,002
(1)당좌자산	184,887,306,417	90,433,705,002
2.비유동자산	354,449,551,406	533,335,795,880
(1)투자자산	266,347,156,330	444,592,465,437
(2)유형자산	88,036,013,176	88,677,539,043
(3)무형자산	66,251,900	65,661,400
(4)기타비유동자산	130,000	130,000
자산총계	539,336,857,823	623,769,500,882
부채		
1.유동부채	1,648,317,899	673,386,387
2.비유동부채	1,854,224,508	1,906,107,916
부채총계	3,502,542,407	2,579,494,303
순자산		
1.기본순자산	442,004,294,138	467,004,294,138
2.보통순자산	93,698,506,436	154,996,186,170
3.순자산조정	131,514,842	(810,473,729)
순자산총계	535,834,315,416	621,190,006,579
부채 및 순자산총계	539,336,857,823	623,769,500,882

운영성과표

과목	제8(당)기말	제7(전)기말
사업수익	16,694,443,791	14,557,579,041
1. 이자수입	4,936,523,836	
2. 배당수입	6,889,362,910	
3. 임대료수입	3,419,569,454	
4. 관리비수입	1,348,011,705	
5. 기부금수입	90,000,000	
6. 기타수입	10,975,886	
사업비용	10,480,772,411	11,502,039,776
1. 기업가정신 교육	2,314,101,388	
2. 청년창업 지원	2,046,368,247	
3. 비영리 역량강화	2,764,019,433	
4. 일반 관리 비용	3,356,283,343	
사업이익	6,213,671,380	3,055,539,265
사업외수익	583,463,113	768,790,262
사업외비용	92,806,276,568	24,788,790
법인세등차감전 당기운영이익	(86,009,142,075)	3,799,540,737
법인세등	288,537,659	295,041,374
당기운영이익	(86,297,679,734)	3,504,499,363



아산나눔재단이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한 평가지표에서
만점 ★★★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비영리단체를 평가하는 지표를 자체 개발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평가, 발표합니다. 아산나눔재단은 2018년 진행된 2017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결산서류 보고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5인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투명성, 책무성 측면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비용이 상당하고 출연재산 운용소득 중 상당 부분을 공익 목적에 부합해 사용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재무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정확한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등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원진



이경숙 이사장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도현 이사
국민대학교 교수



김상범 이사
SK encar.com 대표



김상헌 이사
네이버 경영고문



김지훈 이사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사장



모종린 이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안성기 이사
영화배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이석연 이사
법무법인서울 대표변호사
한국세무사회 고문



장석환 이사
하나넷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정남이 상임이사
아산나눔재단



오세현 감사
현대중공업
준법경영실장/부사장



이진학 감사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사무국

CHAIRPERSON 이사장	이경숙
EXECUTIVE DIRECTOR 상임이사	정남이
STARTUP CENTER 스타트업센터	김형진 센터장 강해진 매니저·백하정 매니저 안재선 매니저·이현승 매니저 조주희 매니저
ENTREPRENEURSHIP EDUCATION TEAM 기업가정신 교육팀	김아람 팀장 고민정 매니저·천성우 매니저
SOCIAL INNOVATION TEAM 사회변화 교육팀	박지훈 팀장 박성중 매니저·백민경 매니저 안태호 매니저·전경호 매니저
MANAGEMENT SUPPORT TEAM 경영지원팀	이고은 팀장 김미경 매니저·양경민 매니저 정동하 매니저·최유나 매니저
PR&COMMUNICATION TEAM 홍보팀	김민우 매니저·전송이 매니저

출연자 및 출연기관

아산나눔재단 탄생에 뜻을 모아주신
출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CORPORATIONS
법인

현대중공업그룹·KCC
현대백화점그룹·현대산업개발
현대중합금속·한국프랜지공업
현대중합상사

INDIVIDUALS
개인

정상영·정몽준·정몽근
정몽규·정몽석·정몽윤
정몽진·정몽익·정지선



THE ASAN NANUM FOUNDATION ANNUAL REPORT 2018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2018

기획 및 편집	아산나눔재단
발행	아산나눔재단
발행일	2019.05
디자인	얼스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08
전화번호	02.741.8220
홈페이지	www.asan-nanum.org
이메일	info@asan-nanum.org
블로그	blog.naver.com/asan_nanum
페이스북	facebook.com/TheAsanNanum

아산나눔재단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아산나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자료 및 콘텐츠의 저작권은
아산나눔재단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9 THE ASAN NANUM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